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음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17절

십대 자녀가 스스로 믿음을 갖도록 돕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자

부모님 없이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이 특별한 주일 아침, 한 분은 몸이 좋지 않았고, 또 한 분은 지방에 있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자동차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는데 혼자 교회에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 생각했다. 나를 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혼자 교회에 갔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혼자서 어른들과 소통하는 게 낯설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위해서 교회에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갈망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혼자 교회 갔던 그날 내가 느꼈던 확실함이다. 부모는 자녀를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고, 예배에 또 별도의 청소년 모임에도 참석시킨다. 식사 시간이면 기도를 하고 자주 가족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이 지나치게 미디어에 빠지지 않게 관찰한다. 하지만 부모라면 아이들이 반항할까 봐 걱정한다. 아무리 부모가 경계를 정해도 우회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안다. 아이들은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학이다. 집에서 나가는 순간 부모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을 받았다(엡 6:4).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을까? 확실하게 보장된 공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좋은 패턴을 제시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고전 3:6). 이 구절에는 양육에 관한 네 가지 방법이 나온다.

내 역할을 파악하자

내 아들은 농구를 한다. 그런데 가끔 경기에 가서 보면 자녀의 실력이나 수준을 넘어서는 기대를 품고서 공개적으로 자녀를 질책하는 부모를 본다. 그건 절대로 안 통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이의 믿음이 자라도록 강요할 수 없다. 부모로서 우리의 목적은 심고 물 주는 것 이상이 아니

다. 겉으로만 보면 운명론으로 들리겠지만, 이런 해방감을 주는 진리이기도 하다.

내 역할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소리 지르고, 처벌하고, 보상하고, 강요하고, 제한하고, 비판하는 등 통제하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더 나쁜게는 반항으로 이어질 때 느끼는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십대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자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대신,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 가르치며, 성령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언제

나 부모가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조치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나부터 신앙을 갖자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딸이 도통 신앙이나 교회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탄식하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 딸은 우리가 진행하는 중 고등학생 대상 소그룹 성경공부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성신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지 물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름 이유를 댔다. 한 마디로 매우 바쁘다는 것이었다. 딸의 신앙 교육에까지 시간 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녀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3면으로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이 파고들 때 마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마음은 생각의 공장이다. 생각에는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반성하고, 또 반주한다. 그러다 보면 종종 초대하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런 생각 중에는 때때로 병적인 호기심에서 튀어나온 것도 있다. 구불구불한 산간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동안 갑자기 바퀴를 오른쪽으로 급회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다. 또한 죄악된 마음에서 기인한 생각도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모욕감을 주어야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 근원이 무엇이건, 병적이건, 폭력적이건, 성적이건 상관없이 거슬리는 생각은 부른 적도 없는데, 마음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슬리는 생각을 조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네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1. 지금 내 상황에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가?

스트레스나 변화가 심한 계절에는 안 좋은 생각이 급증한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은 최고 등급 보안 시설을 갖춘 교도소의 구급 담당관이였다. 그 기간에 나는 생생한 꿈을 많이 꾸었고 또 안 좋은 생각에 자주 시달렸다. (이 둘은 종종 서로 연관 있다.) 폭동이 일어나고 수감자들이 감옥 밖으로 나와서 나를 쫓는 상상을 했다. 식당에 갈 때면 문을 감시하려고 오래 가장 뒤쪽 구석에 앉았다. (4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목회대상 손기성 목사



푸른초장 김홍철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시론

비스듬히 그러나 받쳐주며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팬데믹이 엔더믹으로 접어들고 이젠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다. 마치 지구멸망의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처럼 살았던 팬데믹의 날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젠 다시 괜찮다. 안전하다. 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이 살고 있다.

빌 게이츠는 팬데믹이 지나간 후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대단히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위기 동안에도 결국 우리는 지나왔어요. 향후 10년 안에 우리는 제조가 쉽고 여러 종류의 호흡기 병원체 감염을 장기적으로 막아 주는 차세대 백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발달된 유전체 기술로 바이러스를 빠르게 감지하고 즉시 억제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의료, 기후 등 여러 영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재보다 더 낮게 만드는 놀라운 혁신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빌 게이츠가 한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우리들의 세상'은 계속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도록 했다.

정말 그런가?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좋다. 그 말이 맞아들어가면 좋겠다. 비판보다는 낙관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케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되도록 살아보자"고 빌 게이츠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어주고 싶다. 솔직히 그런 세상이 오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덧붙여본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그 낙관론으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 펼쳐져 있으니 옛 시조의 마지막 연 앞에 외치는 "아흐, 오호라, 통재라..."라는 탄식이 나온다. 한 기독교신문의 주요 기사 제목들을 보자. '000총회장 불륜 의혹 파장, 모 선교회 간사, 간음 추행 2심도 유죄, 000목사 성폭력 의혹, 설교 표절, 교회는 분열'...

이단 교주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사건화 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기독교단체들마다 숨기고, 숨겨지고, 감추고 싶은 아프고 화나고 슬픈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교회는 빌 게이츠의 낙관론에 조용히 붙어있으면 될까? 아무리봐도 '전반적으로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물론 교회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비판론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다. 성경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낙관(樂觀)이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2천년 신앙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보호해준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겔 16:6)"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이어오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믿기에 불안함 가운데서도 고른 숨을 쉬고 있다.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다. 어느날 중학생 아들이 질문하더라. "아빠는 내 영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 앞에서 당황한 50 초반의 이 아빠의 아들은 중학교를 자퇴했다. 그러나, 이 아빠는 수년이 지난 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질문은 아빠인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아들은 방향 후 자신만의 자리에 돌아왔고, 아빠인 저는 그동안 완전히 변했습니다."

칼럼 몇 줄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칼럼의 오늘 마무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마치려 한다. "교회인 나는 한 영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휘휘 돌아다니는 여행자의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며 걷는 순례자의 걸음이 되길 바라며, 아빠나 아들이나, 목사나 성도들이나 너나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 기뻐 나누가 되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정현중의 시 (비스듬히)의 마지막 줄을 읽어본다.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어'

djlee7777@gmail.com

거룩한 흥정: 아브라함처럼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언뜻 보기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성경 속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기이하게 느껴진다. 소돔의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문제를 놓고 사람과 협상하신다고? 나라면 결코 만들어 낼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성경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장면도 특히 기도라는 분야와 관련해서 의로움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 말로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이다(대부분의 기도와는 달리, 여기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임재한 상태이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 네 가지 특징이 있다.



1. 구체적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다. "주님, 거기에 의인이 여러 명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요 말입니다." 아니,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정확한 숫자를 말한다. "선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마흔다섯, 마흔, 서른, 스물, 열..."

이 기도는 고아원 운영으로 유명한 19세기 성인 조지 윌러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처럼 모호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아버지, 내일 아침까지 빵 110덩이와 신발 75켤레가 필요합니다"처럼 기도했다. 한번은 설교 집회를 위해 미국으로 향해하고 있었는데, 배가 짙은 안개에 갇혔고, 여행 전체가 좌초할 위험에 처했다. 선장에 따르면 윌러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뜻과 일치한다면 오 분 안에 이 안개를 제거해 주십시오." 윌러는 얼마든지, "주님, 이 안개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전능자에게는 오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꺼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선장 앞에서 얼마나 비참해 보이겠는가? 그리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실망할 게 두렵기도 하다. 포춘 쿠키 속 글귀처럼 막연하게 기도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은 훨씬 적어진다. 그러나 나중에 일어난 결과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지 아닌지 궁금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실망감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 분 안에 안개가 걷혔을 때 윌러가 느꼈을 감격은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2. 긍휼의 마음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타는 소돔을 보고 아브라함은 최소한 "차마 믿을 수가 없구나! 의인이 열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닌가?"라며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그만큼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뛰어난 교회 또는 조직이지만, 단지 몇 명의 문제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 또는 조직 전체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반대였다. 그는 악한 도시 안에 있는 의로운 몇 명 때문에, 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 전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오늘도 연기하신다(벧후 3:9).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 살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 나는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살라라"(겔 18:23, 32)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원수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를 베풀다(눅 6:35). 그의 기도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분반야야 할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 나라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의인이 열 명 넘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소서.

3. 끈질기다
Importunity, 이건 내가 철자를 잘못 쓴 게 아니다. 이건 "특히 성가시거나 방해가 될 정도의 끈기"를 의미하는 오래된 킹 제임스 단어이다. 그렇다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짜증을 냈다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 대화를 읽으면서 '와, 아브라함, 이 친구 배짱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계속 오케이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감사하거나 만족하는 대신 오히려 더 밀고 나가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

이건 뭐 거의 다니엘이 "주님, 들으소서.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패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윌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어쩌다 거룩하게
일상의 유혹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준 / 규경
시대를 읽다 성경을 읽다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점

해외 언론은 한국인들이 점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언론에 의하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점을 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되는 액수가 1년에 4조 원가량 된다고 했다. 한 마디로 한국인 중에는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을 치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청년 45%가 심적

평안을 위해 점, 사주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일보 23.12.14) 몇 사람 중 한 명이 점을 친다고 한다. 무당의 유투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도 점을 치려고 무당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성경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고, 점을 치기

위해 무당을 찾는 행동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성경은 곤란한 상황을 만난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무당이 사울 왕 앞에 사무엘이라고 불러올린 자가 과연 사무엘 선지자이었을까? 성서학자들은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 흉내를 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유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한번 죽은 자는 절대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음을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우리의 미래사를 비밀에 부쳤다는 사실이다. 전도서 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을 두 가지로 섭리하시는 데 그것은 형통함과 곤고함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섭리하셨다고 했다. 그렇다면 점치는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아 자신도 속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속이는 존재일 뿐이다. 고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특별한 예지나, 감각, 또는 꿈 등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를 꾀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꿈이 정확히 맞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고,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꿈이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꿈에 권위를 두게 된다. 그래서 안 좋은 꿈을 꾸는 날은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은 조

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런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 낮 개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전전긍긍한다면 그 얼마나 한심한 작태일까? 사탄은 밤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사탄은 찾아와 우리의 마음 밭에 온갖 잡초를 뿌려 낸다. 오래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유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비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꿈이 신기할 정도로 들어맞는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점점 벗어나더니 급기야 유학을 접었고 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마귀는 택한 자라도 유혹하려고 도전한다. 고로 우리는 사탄에게 어떤 틈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감정, 심지어 꿈이라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까닭 잘못하면 우리도 유혹의 나라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구렁이에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돌아오던 중 얘기에 팔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는 사흘이나 걸려야 했다.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배를 노력해야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만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진리가 아닌 미신에 미래를 맡긴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홍철 목사
(남가주든든한교회)



스가라는 학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전재건을 향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백성들은 절망하며 지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를 보내시고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학개에게는 지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맡기셨다면 스가라 선지자에게는 8가지 환상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즉 장차 성취 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는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벽으로 경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생활 후 돌아온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은 참혹하게 무너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사업, 건강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와 직장이 자녀의 삶을 지켜줄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올인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금은 보화와 대리석으로 쌓았던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여리고 성도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즉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스가라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약속 하

것이니라" 타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귀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며 자리 잡은 터전을 버리고 귀국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몸에서 시 신경이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가 들어와도 눈을 감거나 눈물을 흘리며 눈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백성을 가장 아끼고 중요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의 관계에서 불순종하며 속을 썩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한 상처와 모욕감을 주고 나간 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 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았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 임이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연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찬양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머무시며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머무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날 버려도 주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으시고 머무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기쁨과 찬양이 넘쳐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귀환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불 성곽이 되어 지키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시며, 늘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쪼록 현실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늘 말씀으로 힘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uqui70@hotmail.com

"불 성곽의 은혜"

스가랴 2: 1-13

이처럼 하나님은 지치고 어려움에 빠진 자녀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학개를 통해 우리를 응원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스가라의 예언을 통해 내일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비록 현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언과 환상을 통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시간 스가라서의 3번째 환상을 통해 내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가난과 침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환상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모습은 현실과 정 반대입니다. 4절 끝 부분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바로 무한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 우리는 오늘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께서 몸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웬지 '성곽이 없다'는 것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곽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강한 성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낙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은 두려움을 떨치고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로 둘러싼 성곽은 바로 하나님의

나눔에서 친히 불 성곽이 되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직 귀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 이유로 아직 귀환을 결정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머뭇거리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심판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아파할 때는 하나님의 눈이 상한 것 같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가라의 환상을 통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여기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끝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10절 "여호와와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 임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을 관개에서 불순종하며 속을 썩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한 상처와 모욕감을 주고 나간 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 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았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 임이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연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찬양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머무시며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머무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날 버려도 주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으시고 머무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기쁨과 찬양이 넘쳐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귀환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불 성곽이 되어 지키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시며, 늘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쪼록 현실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늘 말씀으로 힘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uqui70@hotmail.com

안 좋은 생각들이 파고들 때

(1면에서 계속) 스트레스나 변화가 잦은 계절이면 마음은 분주해지고 새로운 도전과 위함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다. 새 학교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며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이 시달릴 것이다. 안 좋은 생각이 급증한다는 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내가 믿고 사랑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적절하게 스트레스

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2. 안 좋은 생각이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 과거나 현재의 트라우마는 안 좋은 생각을 촉발할 수 있다. 거짓말의 잡초는 트라우마라는 토양에서 자란다.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 끼여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며 힘들어 하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라. 해결해야 해, 해결해야 해, 해결해야 한다고... 아침을 먹고, 스쿨버스를 타고, 또 수업을 듣거나 장바구니를 볼 때도 내내 머릿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지금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 찬 아이의 경우에, 그는 지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다. 게다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음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까지 정의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안 좋은 생각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내 성격상 안 좋은 생각이 쉽게 공략당하는 건 아닐까? 안 좋은 생각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심리적 정의는

우리가 경험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때때로 유익하다. 그런 사람은 강박 장애의 피해자일 수 있다. "고통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심리적 진단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어려움을 내면화(병리화)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다. 성급한 내면화는 종종 진단 결과가 자신의 성격에 내재하고 있었다고, 따라서 의학적 개입만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한다. 이런 경향이 당신의 특징 같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혼자자 아

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당신은 절대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운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셋째, 안 좋은 생각이 알아서 사라지겠지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려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4. 왜 안 좋은 생각이 내 속에 있을까? 안 좋은 생각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 마음속 죄를 가리키는가? 구치소 직원이었을 때, 나를 괴롭히던 생각이 가리키던 지점은 새롭고 위험한 환경에 처한

나와 아내에 대한 보호였다.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것도 있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괴로움을 억누르며, 나는 나를 폭행했던 수감자에게 보복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 대해 성격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죄악된 욕망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투명한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 (9면으로 계속)



기쁜 소식! 공립학교 수업시간에 성경교육 포함 정책 통과하다!

미국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온 소식인데요, 오클라호마주 정부 교육 책임자인 교육위원장인 지난 6월 27일, 공립학교 5학년 부터 12학년까지의 수업 시간에 성경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 주 교육위원장은 오클라호마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을 교실에 배치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업과정에 미국 역사 텍스트로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교육정책을 추진한 주인공은 바로, 오클라호마주 교육위원장인 Ryan Walters (라이언 월터스)입니다. 그는 오클라호마 신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사구 문명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며, 미국 법 체계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문서이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The Bible is "one of the most foundational documents used for the Constitution and the birth of our country. - 성경은 헌법과 미국 탄생에 사용된 가장 기초적인 문서 중 하나"라 전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육 지침은 오클라호마주 전역에 적용되는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기존 법에 의해, 이미 교실안에 성경을 배치하고, 성경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2010년 오클라호마 주의회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성경의 규약과 신약에 대한 선택과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문학, 예술, 음악, 관습, 웅변, 공공 정책 등 현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성경적 내용, 인물, 시, 설화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하는 HB2321 (Schools-Provide elective Bible courses in public school districts)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 Brad Henry가 서명했습니다. HB2321은 또한 fairness를 위해, 수업이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다른 종교적 관점을 수용하며, 특정 종교나 종교적 신념의 결여를 조장하거나 불리하게 하거나 주 및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클라호마 기준법에, Ryan Walters 주정부 교육감이 이번에 추가시키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건국 문서,

US Constitution 같은 헌법등, 미국을 건립한 미국 founding father's 들이 어떻게 성경을 인용하여 미국 건립을 하였는지, 성경이 미국 건립과 사회 문화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역사적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터스는 목요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메이플라워 협정(그리고 다른 기초 문서들을 가리키며)에 건국자들이 개념적으로 무엇을 믿었는지 설명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월터스 주교육위원장은 학교 교육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용해 5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에 성경이 역사적 차원에서 반드시 포함되고 가르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Ryan Walters 주 교육위원장의 당찬 추진력에 많은 박수도 있었지만, 당연히 이런 지침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 기사에 의하면, 월터스 교육위원장의 새로운 교육 지침 발표는 정교분리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슬람 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한예로, 오클라호마 시티의 민주당 소속인 캐리 히스 주 상원의원은 이 정책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당장 부족한 교사들 채용이라든지 "우리 학교가 직면한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이슬람 관계 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의 오클라호마 민주당 소속이자, 지부장인 아담 솔타니 지부장은 성명에서 "오클라호마의 공립학교나 전국의 다른 곳에서 종교를 강제로 가르치거나, 수업 계획의 일부로 요구하는 어떤 요구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U) 회장 겸 CEO인 민주당 소속의 레이첼 레이저도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라이언 월터스는 성명에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문화적 기준이다"며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는 오클라호마 학생들이 미국의 건국 개념도, 미국 역사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오클라호마 교육 기준이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반발과 반대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성경을 학교 수업에 역사와 문화적 기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이 Ryan Walters라는 주 교육위원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이언 월터스는, 원래 공립학교 교사로 섬겼었다고 합니다. 이미 교육 쪽에서는 인정받고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런 라이언 월터스는 2022년에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에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오클라호마주에서도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동성애, 친트랜스, 성적으로 문란한 책들이 공립학교 도서관까지 침투해 온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지지가 컸다고 합니다.

당시 라이언 월터스는 자신의 공약으로 반기독교 이념이 강하게 섞여있는 Woke 이념에 맞서며, 제일 먼저 친동성애책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책들이 학교나 동네 도서관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급진적인 좌파 이념을 몰아내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월터스를 학부모들과 grassroot 시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터스는 2022년 교육위원장이 되자마자, 그의 약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렇게도 좋은 교육 지침들을 계속 통과시키는 월터스 교육위원장님 같은 사람이 미국 전역에 있는 다른 주에서도 뽑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클라호마주만 좋은소식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클라호마주의 본을 받아, 다른 주들도, 공립학교 수업에서, 성경 교육을 장려하고, 급진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woke) 이념을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의 뺨을 후려갈기면 상대방의 오른뺨이 아니라 왼쪽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 이희은

오른 뺨을 치거든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한 대로 상대방이 내게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후려갈기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왼뺨을 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상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등 뒤에서 때려야 상대의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주 보는 상황에서는 왼손을 때려야 상대의 오른뺨을 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니면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상대의 오른뺨을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 왼손은 부정당한 손으로 여깁니다. 이유는 왼손으로 화장실에서 대변의 뒤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식사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왼손으로 맞는 것은 "똥 만도 못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오른손 등으로 뺨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똥만도 못한 놈이라는 것의 두 세배 이상의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세번째의 경우인 오른손 등으로 뺨을 후려갈기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잘 참아 넘겨도 인격적인 모욕 즉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맞대응하며 보복하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에게는 보복 심리가 있어 네 뺨이 하나면 내 뺨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나도 내 손으로 남을 치려 하며 발까지 올라갑니다. 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솔직히 인간으로서의 따르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뺨을 맞는 것과 같은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은 더 큰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감수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즉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참아야 하며 사소한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손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고문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인격적 큰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대응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저항주의입니다. 심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비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오히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산상보훈은 천국 백성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남에게 부당하게 인격적 모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gan.org Tel:(82)2-430-7000 (내),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55</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양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4, Fax:(031)977-8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조장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996-1000, 팩스(031)996-807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우)16889지번 - 죽전동 1312</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88-9988, Fax:3827-1008 서울 강북구 노재로 50(우편번호: 01072) 지번: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p>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성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82)2-2643-8533-4, Fax:2648-4662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1</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82)2-568-0191 Fax:(82)2-562-2738 인천 서구 불로로 64 (도당영주동)</p>
<p>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저녁 7:00 Tel:(02)132-2341~3, 사택(02)389-2235 서울 중로구 인사동길 7-1</p>	<p>사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하이로 100번길 33 사은소교회 [이외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842-1988 사택(011)82-2-842-1988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문대로 101 (C.C.M.M)빌딩 국민일보</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길 11 www.eshinchoh.org</p>	<p>인안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환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방시로 50-1 www.inanjeil.org</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세백예배(월요일): 오전 5:30/오후 9:00 Tel:(82)2-568-0191 Fax:(82)2-562-2738 경상남도 창원시 창성리 상산구 봉암로 411 www.yang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8</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세백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8881, Fax:(02)942-888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진로95길 83</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부평성전 2137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13(신곡동)</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054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19</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세백기도회: 새벽 5:30 Tel:(82)2-755-9191, Fax:(82)2-753-8114 (28647) 충북 청주시 서현구 내수동로 133 (사평동)</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04427)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천로 188</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사랑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죄인들에 대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사랑은 참 치사하다. 사랑에도 갖은 조건을 내세우고 이별에는 더 많은 이유들을 주렁주렁 늘어놓는다.

내가 쓴 책 중에 '물고기의 갈증'이 있다. 홍수가 나면 세상 천지에 물이 넘쳐난다. 그러나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는 어렵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지만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없어 갈증하게 된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얼마나

될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은 얼마나 될까?

말이 씨가 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시면서 불만 불평하는 자들 모두가 다 사막에서 죽도록 하셨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배고픈 자에게 먹여라 한다고 해서 배고픈 이의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라 한다고 해서 그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필요 한 이에게 나눠줄 때만 배고픔도 갈증도 해소가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사랑은 친절이나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관심을 보일 때 비로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이유가 달려야 하겠는가.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막스 뮐러가 한 말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다.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인 사람의 그 상태대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죄인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는 이유나 조건이 필요치 않다. 여기에 무엇을 보아야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경없는 의사회, 옥스팜, 그린피스 등 구호나 환경 단체들의 모금광고가 참 많다. 많은 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인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뜻으로 동참했다면 그 결과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주린 사람의 입에 갈한 사람의 입에 내가 흘려보내는 그 선한 동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곳에 내미는 나의 손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그 제 목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교인들이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여부에 따라 그 가치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다. 사용 여부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몫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교비로 드렸는데 선교비로 쓰이지 않기에 더는 드리지 않겠다거나 구제비로 드렸는데 구제에 쓰이지 않아 다시는 구제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구차한 이유나 변명이 된다. 사랑의 이유나 조건도 이와 같다.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맹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어.' 권정생 선생이 하신 말이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주린 자와 같은 자는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다. 주린 자와 같은 자가 내가 부

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절대로 없다. 무엇보다 지금 하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도 하지 못한다. 그때는 또 그때대로 이유와 변명이 앞설 것이다.

옛적엔 엄청난 비가 내렸다. 캄캄한 세상이 다 떠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할 정도였다. 천둥과 번개가 폭탄이라도 터지듯 요란하게 번쩍거리고 땅은 더 낮은 곳으로 푹푹 가라앉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깝고 나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설치면서 아직 숨을 쉬며 살아 있는 지금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때요 사랑의 손을 내밀 때가 아니라 싶어졌다.

아모레 셴프레(영원한 사랑-이태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지금 세상에 언어유희로만 넘쳐나는 사랑과 자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되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는 사랑으로 웃음과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하나님덕분에 살았다' 메시지... 기독교리더들도 호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 사고에서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우하심이라고 고백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한 것에 감사하며, 폭력 행위 근절과 평화와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14일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며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신앙 회복력을 유지하고 사악함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피격 사고로 숨진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고, 또 강하고 단호하게 남아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지도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아있어 다행이다'고 반색하며 동시에 평화와 연합을 촉구했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X(구 트위터)에서 "오늘은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하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며 "이 충격적인 정치적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와 화해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언급한 SNS성명을 언급하며 "그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조카인 알베다 킹 박사는 "저의 기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미국인과 함께한다. 미국이 기도, 용서, 비폭력, 그리고 단결에 헌신할 때"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그레이프라인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의 에드 영 수석 목사는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에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가 다른 차이점을 폭력 행위로 해결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의 평화와 보호를 기도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미국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미 복음주의 교인 열 중 넷 온라인 주일에 배... 교회 쇼핑 3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 미국 복음주의권 신자 10명 중 4명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

해 주일 예배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탐색으로 다른 교회를 찾거나 교회를 옮기는 이른바 '교회 쇼핑' 현상도 팬데믹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 대면 예배 참석자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관인 미국 인피니티 콘셉트는 최근 컨설팅 회사 그레이 매터 리서치와 함께 '코로나 이후의 교회: 복음주의 참여의 변화'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복음주의 개신교인 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끝난 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은 78%였다. 한 달에 한 번 미만 참여하는 비율은 11%,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비율은 11%였다

대면 및 온라인 예배를 각각 따로 때내 들어 다보면 대면 예배 참석률은 떨어진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 정도(54%)가 '매주 대면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한 번 대면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65%에 달했다. 5명 중 1명(19%)은 '예배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39%였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전면 등장한 온라인 예배가 낳은 이른바 '메뚜기 성도(church hoppers)'의 증가세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나 교회의 각종 활동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탐색해 교회를 옮기는 이들을 일컫는데, 15%로 팬데믹 전(5%)보다 3배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의 경우 더 매력적인 예배나 프로그램 등이 있는 곳으로 모이지만 해당 교회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부류"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지난 2월 발표한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교인들의 현장 예배 참석률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1월 기준) 성인 예배는 87%, 교회학교는 81% 회복에 그쳤다.

전석재 미국 유니타리티 신학교 선교학 교수는 "대면 예배의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나안' 성도를 향한 교회의 신뢰와 공공성 회복, 대면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트럼프 과녁" 해명에 트럼프 지지층도 발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과녁 정중앙(bullseye)' 발언을 실수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총기의 조준점인 '십자선(crosshairs)'을 추가로

언급해 트럼프 열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트럼프 피격 사건의 충격 속에 잠잠했던 민주당 내 '바이든 용퇴론'이 물밑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녁 정중앙' 발언과 관련해 "나는 십자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과녁 정중앙이라고 했다.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실수였다"며 "트럼프에게 집중하고, 그의 행동에 집중하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후원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를 과녁 정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27일 대선 TV토론 참패로 자신에게 쏟아지던 민주당 내 비판 여론을 트럼프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뒤 '과녁 정중앙'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풍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열성 지지층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든이 암살 표적을 지목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퍼뜨렸고,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공화당 인사들도 "바이든의 이런 수사(修辭)가 결국 암살 시도를 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십자선'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의 해명도 지적을 받았다. 과녁 정중앙과 십자선이 목표물과 조준점의 차이일 뿐 모두 총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과 2020년 트럼프 대선 캠프 고문을 지낸 스티브 코르테스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바이든의 발언은 결국 트럼프를 겨냥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피격 이후 당과 대선 캠프에 공격적인 언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자신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가 TV토론에서 했던 거짓말에 집중해 보라. 나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선거 결과를 거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피격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당신(진행자)도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전 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J.D 벤스 상원의원에 대해선 "트럼프의 복제인간"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들에 대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최근 수일간 잠잠했던 후보 사퇴론이 당내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출산 직격탄' 대만, 정년 65세에서 또 연장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는 대만이 현재 65세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나섰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은 퇴직 정년에 대한 법적 근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 협상을 통해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점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근로 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 대만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단체들의 반응은 심드렁한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날 입법원에서는 정부가 퇴직금, 노동보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만의 50세 이상 인구는 2034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진짜 하루가 길어졌다... 온난화에 지구 자전 느려져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져 하루의 길이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연구진은 이날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기후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빙하가 녹는 물이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하루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의 녹은 물이 적도 부근의 해수를 늘리고, 이에 따라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특히 2000년 이후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더 많이 녹게 되면서 자전 속도가 더 늦춰졌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00년간 하루의 길이는 1.3ms(밀리초) 늘어났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 늘어난 하루의 길이는 0.3~1.0ms로 조사됐다.

온난화에 따른 하루의 길이 변화는 1000분의 1초 단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위성항법장치(GPS)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확한 시간에 근거해 체결되는 금융거래에서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온난화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2100년부터 하루의 길이는 100년간 2.6ms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네딕트 쇼아 취리히 연방공과대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가 온도 상승 등 지역적인 현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전이라는 지구의 근본적인 기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1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III.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

해방신학은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널리 퍼졌다. 한국에서도 민중 신학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해방신학의 개념들은 몰트만 (Jürgen Moltmann), 판넨베르그 (Wolfhart Pannenberg) 그리고 존 콕 (John Cobb), 슈벨트 옥덴 (Schubert Ogden)과 같은 과정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나타난다.

해방신학은 주로 남미, 미국의 아프리카계, 페미니스트 등 여러 사회적인 운동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났다. 해방신학의 중요한 학자들 가운데 가장 중심된 인물은 구티에레즈 (Gutierrez, 1928-)이다. 흑인 신학은 인종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페미니즘은 성별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집단은 억압하는 집단과 억압받는 집단 사이에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it is a question of relations between one group considered oppressive and another considered oppressed). 그들은 성경을 억압받는 사람들의 관점 (the perspective of the oppressed)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방신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회-정치적 행동 (socio-political action)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행동은 필연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이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 필연적인 갈등 (inevitable conflict)의 개념은 주로 마르크스 사상과 해방신학에서 다룬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티에레즈의 방법론은 상당히 호전적이다. 그러나 구티에레즈는 그러한 호전적인 태

도가 반드시 증오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때로는 적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구티에레즈에 의하면 모든 신학은 억압과 해방의 축을 중심 (the axis of oppression and liberation)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요구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

구티에레즈는 마르크스주의가 억압과 해방 갈등 (the oppression/liberation conflict)을 계급투쟁 측면에서 가장 잘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자는 적어도 "분석 도구" (analytical tool)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한다.

구티에레즈는 로마 카톨릭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바티칸에 의해 정죄되었다. 해방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신학자들과 교황을 포함한 주교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다. 구티에레즈가 마르크스주의에 전적인 헌신된 자는 아니겠지만 그의 사상과 행동은 마르크스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해방신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마르크스의 목표는 거의 동일하다.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상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not to understand the world, but to change it). 그는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시대의 사회적 갈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방신학은 "세속화의 신학" (theology of secularization)의 많은 개념과 수사법을 차용했다 (특히 몰트만과 하비 콕스). 구티에레즈는 우리가 세속화를 향한 현대의 발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를 세상의 관점에서 (in terms of the world)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속된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는 궁극적인 구별이 없다고 했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세속과 신성함 (the sacredness of the profane)의 공존을 주장했다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66-68).

구티에레즈는 신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몰트만의 주장



따르지만, 그는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면서 몰트만의 개념보다는 현재 상황 (the present situation)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구티에레즈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주장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내재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 안에 그리고 인류와 함께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는 보편적이다 (His presence is universal)라고 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비 기독교인에게도 그의 임재는 보편적이었다. 특히 그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이웃"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는 "이웃에게로 개종" ("we must be "converted to the neighbor") 해야 한다. (Ibid., pp. 189-207).

구티에레즈는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개방성 (an infinite openness to God) 이 있다고 하며, 보편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는 반대 개념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는 유동적 (fluid)이다. 구원은 사회적 계층의 분리 및 구분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죄는 이웃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개인적으로든지, 집단 사회의 구조 (structures of collective society)에

레즈 (Gutierrez)는 이 상관관계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Ibid., p. 87. Footnote 98). 대부분의 해방신학자들은 몰트만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도록 자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적, 속죄, 부활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해방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동안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하여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다. 구티에레즈는 예수님에게는 열심당 혁명가들의 (the Zealot revolutionaries) 친구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Ibid., pp.226-7). 그리고 예수께서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신 이유는 (1) 그분의 사명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2)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열심당의 태도와 달랐다. (3) 그는 왕국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을 보았다. (4) 예수님은 형제애의 부족이 정치적 문제의 근원으로 보았다. (5) 예수님은 정치적 행동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구티에레즈에 의하면 예수의 혁명이 열심당의 혁명보다 더 급진적이었다고 말한다. 예수의 메시지는 마음을 향한 것이며, 구조적 변화를 가장 잘 이끄는 것은 마음의 변화이다.

해방신학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문제의 관심을 파괴한다. 그러나 억압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이기심과 죄를 해방시킨다. 그러므로 신성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함께해야 한다 (sacred and secular work together).

구티에레즈는 교회는 "보편적인 구원의 성례" (the universal sacrament of salvation)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지향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는 세상의 본성을 드러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과 마찬가지로 구티에레즈도 "콘스탄티안 모델"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여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교회는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세상으로부터 그 의제 (agenda)를 취해야 한다는 세속 신학의 개념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과 싸우기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 그는 자본주의가 남미의 빈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기독교인은 사회를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폭력이 필요 될 수 있다. 구티에레즈는 경제적 억압 그 자체가 폭력의 결과이므로, 그러한 억압을 제거하는 것이 "대응하는 폭력" (counter-violence)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pp. 88-108).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안인교회</p> <p>담임목사 :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bfqusa@yahoo.com / www.lbfq.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혼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잠스-KDC, 킹덤드림센터) 7:30 2부: 오전 9:10 3부: 오전 1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714)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백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예배: 오후 7:30(월-금), 6:00(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교회</p> <p>담임목사 :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77, www.wmcsa.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지역원</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관심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일함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예배: 오후 3:00(월-토), 3:5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강화: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동요문신(주일): 오전 9:30 TEE-동요문신(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2:00(월-토)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E-성경강화(월-금): 오후 7:30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213-383-9136, pyongs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 한인장로교회)

요나의 표적(Sign of Jonah)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합리적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만날 수 없는 경우죠. 하나님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와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되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Miracle is the Resurrection) 이 땅에서의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마 12:39)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표적을 가리킵니다. (은 1:17)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듣고 나서 도망가다가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삼일 동안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삼일 동안 부르짖었던 곳은 "스올의 벧속" (은 2:1,2)이었습니다. 물고기 벧속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요나가 지옥 같은 물고기 "스올의 벧속"에 있었음에도 죽지 않고 삼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은 2:10) 이 땅에서의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다가 겨우 때 맞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원함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전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짐승까지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은 3:8-10) 그런데 요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선지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알량한 설교를 한번 듣고서도 회개하였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인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 때에 회개하여 멸망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일관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시바가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 12:42) 남방 여왕이 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많은 보물을 준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대하 9:12) 그런데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 "시바 여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너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여찌 그리 악하게 지혜의 말씀을 배척하느냐?"고 정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은 11:25,26) 또한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삼일 만에 살아난 것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연료

모든 사람은 인생 주기가 있다. 태어나서 양육자의 전적인 돌봄 속에 성장하는 영아가 있고 자유의지를 외치며 제멋대로 입고 먹겠다고 고집부리는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를 경험한다. 어느 날 귀에 이어폰을 장착하며 부모님과 대립하며 반항하는 살벌한 청소년기를 보내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평생 연약한 결혼을 하며 바쁘게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는 성인기를 거쳐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된다. 이렇듯 인생은 파릇파릇한 잎이 하나둘씩 세월의 흐름 앞에 잎의 색상이 변화되어 낙엽이 되어가듯이 영아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의 인생 주기를 거친다.

오십 대 중반의 삶의 시기를 지나며 여러 자매의 이야기를 마주한다. 특히 중년의 고종인 갱년기를 지나는 자매들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다. 정신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다 보니 어느 날 아이들은 장성하여 하나둘씩 가정을 떠나자, 몸은 예전 같지 않게 여기저기 통증이 찾아오고 불면증과 씨름하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열감으로 당황할 때가 많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도 있다. 특히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아내들은 오롯이 남편만 보인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변화의 시기를 겪는 아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면 남편인데 대부분의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 그러다 보니 서운하고 억울해서 말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엔 날이 갈수록 찾아지며 서로에게 생채기를 주던 것이 감잡을 수 없는 관계로 악화 되곤 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갱년기 시기에는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 관계로 돌변한다. 남편들은 이런 아내의 변화된 행동에 크게 당황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개 문제가 발생하면 남편들은 아내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며 옛날에는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이제는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린다고 불멘소리한다. 그런 아내의 변화된 모습이 싫어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은 서로를 할퀴는 언어로 더 깊은 상처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들의 요구는 모두가 한결같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 남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차적인 언어 반응에만 실랑이를 벌이다가 말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하다가 결국은 대화를 포기해 버리고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고 만다. 그러면 서운하고 억울한 상대방은 더 악한 모습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더 깊은 나락으로 관계는 곤두박질치게 된다. 그런데 남편들은 한결같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다. 나를 좀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말할 때 지혜롭게 하면 좋겠는데 화를 내면서 통명스럽게 말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니,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중년의 시기, 갱년기를 겪으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들은 사랑의 연료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아내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 말을 경청하며 잘 들어주어야 한다. 절대 말을 끊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아내들을 공격하지 않을 때 아내들은 자신이 남편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 불편한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아내 말의 본질은 남편의 사랑이다. 그러니 비본질에 집중하여 말꼬리 물고 싸우지 말고 그 본질을 채워주고 노력할 때 아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 남편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내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남편은 존경의 연료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존중해주고 칭찬해 주는 아내를 위해 남편들은 자신을 기꺼이 불태워 각오가 되어있다.

중년의 시기를 보내며 같이 살아온 날이 많은 만큼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함부로 아내(남편)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남편들은 사랑받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내들은 존경받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알아 서로의 연료 탱크를 채워주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4)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Tongbu (NY, NJ), New York, and Hawaii region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알매교회)

부스러기 은혜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이 LA를 오게 되어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서로가 30년 이상 각자의 사역을 하다가 만났는데 마치 엇그제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현재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 목사님은 삼십대 젊은 세대를 어떻게 교회 사역에 동참시켜 교회를 부흥시켰는지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자신의 친구인 사모님에 대해서 말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요"라고 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 이 말이 갑자기 나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

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고, 내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일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잘 하는 전도사님이 자신은 매주 토요일 학교 시간에 교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 가서 교회 학생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떡볶이를 사주며 전도했다는 사역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나도 시도해 보아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아서 따라서 해 보았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어색하였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겠다는 일념으로 학생들이 나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 학생들이 저를 멀리서 보더니 참피해서 그런지 다 도망갑니다. 실망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학교 정문에서 있으니 내가 불쌍했는지 한 학생이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

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나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만나면 대화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만나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만나면 어렵게 생각하던 일이 쉽게 느껴집니다.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나면 믿음이 충만해 집니다. 만나면 겸손해 집니다. 만나면 기도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만나면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일깨워 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러한 만남을 부스러기 은혜의 나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

가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식구, 친구, 이웃과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축량할 수 없는 은혜, 내 안에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내 안에 있는 충만한 믿음, 내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나의 믿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무슨 부스러기 은혜를 얻고 있나 되돌아보며 나의 믿음, 사랑, 섬김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supbois@gmail.com

신앙 에세이

마르지 않는 감사의 노래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감사에 대해 남긴 말입니다. "평생 동안 기도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오는 자연스런 발견입니다.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과 삶 모두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감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 때마다 경이로움이 있기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감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심장이 될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볼 때, 겨울 지난 자리에 말랐던 가지에서 꽃 봉우리가 싹을 내릴 때 그 무한한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신앙적인 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깊은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새겨지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감사는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얼굴은 늘 밝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유롭고 태도는 따뜻하여 바람 속의 향기처럼 전해 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확실한 증표이

류용렬 목사 (와싱턴중앙로교회)



고, 감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로입니다. 감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요, 지친 인생을 세우는 힘입니다. 감사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의 대상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공창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마지막까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음표가 있는 노래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의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에 부르실 때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찬란한 날에 우리는 지상에서 늘 사모하며 감사했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preachchrist@kpcpc.org



오렌지한인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정유성 담임목사가 답사를 하고 있다

오렌지한인교회 정유성 담임목사 취임예배

"감사와 웃음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될 것"

오렌지한인교회(OKC) 정유성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지난 7일(주일) 거행됐다. 정유성 목사는 "OKC에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두 달째를 지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함께 감사와 웃음이 그치지 않고 건강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정유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종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이종현 장로 사회로 열

린 담임목사취임순서는 정성욱 교수(테버신학교), 이재학 목사(디모데성경연구원),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송병일 목사(테버한인기독교교회), 김경섭 목사(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의 영상 축하메시지 소개, 본 교회 차세대 사역팀의 특송, 김두한 장로(당회서기) 환영인사, 정유성 목사의 감사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정유성 목사의 'Under Construction'(엡 2:11-21)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정유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안 좋은 생각들이 파고들 때

(4면에서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안 좋은 생각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에 적극 맞서 싸우라고 촉구한다. 그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이다.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고후 10:5). 복음을 사용하여 안 좋은 생각의 중심에 있는 거짓말을 골라내라. 그리고 행동으로 전진하라.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단지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운다. 우리는 건전한 상상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잡힌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빌 4:8). 복음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정신의 놀이터를 만들라. 우리 중 많은 이가 단지 파괴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따라서 건설적인 상상을 할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위험하며 폐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신다.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에 관한 말로 바꾸기

안 좋은 생각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속에 스며드는 한 가지 방법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이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바보야, 나는 분명히 또 실패할 거야. 물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영적 친구로 가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다. 당신을 파괴하는 안 좋은 생각을 확신과 힘을 주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곧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 바꾸라. 지혜로운 많은 그리스도인이 간단한 "호흡기도"(breath prayers)의 사용을 권장해 왔다. 이 방법은 안 좋은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다. 호흡기도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이다. 다음 몇 가지의 호흡 기도를 시도해 보라. •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시 23:1). •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시 56:3). • 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 주님에게서 온다(시 121:2). • 주님 ...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시 123:3). • 하늘에 계신 ... 우리 아버지(마 6:9). • 그 이름을 ...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마 6:9). •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 그 뜻을

망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마 6:10). •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눅 22:42). • 오십시오 ... 주 예수님(계 22:20).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진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를 성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다니, 감사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우리 부부가 쓴 Trading Faces의 부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진리 목록이 들어 있다.)

영적 전투

내가 나 자신에 관해서 하는 말은 중요하다. 사탄에게 당신 말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연습하라. 당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될 필요가 없다. 마음의 싸움은 단순한 신경학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싸움에 필요한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 안 좋은 생각이 속삭이는 거짓말을 파괴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의성의 마음을 키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자. 당신의 안 좋은 생각에는 최종 결정권이 없다. by John Beeson, TGC



세리토스장로교회 여름심령부흥집회에서 안일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여름심령부흥집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주님의 백성 되길"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여름심령부흥집회를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부흥집회는 안일권 목사(세계침자가산교회)가 강사로 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박석영 목사 사회로 14일(주일) 오전 11시 예배시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 김성수 장로 기도, 박규성 목사 봉헌기도, 3부찬양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안일권 목사는 '최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일권 목사는 "십자가의 사랑을 중독자들을 통해 체험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양손과 다리에 못을 박았다. 결국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게

된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핏줄이기에 심지어 마약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한다.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하게 된다. 사랑을 가진 자는 최고의 영적 자산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령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히 마음에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규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벤엘교회, F.I.A 찬양집회 (피아워십)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7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깊이 있는 영성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국교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워십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410-461-1235

뉴욕장로교회, 특별 찬양 블레싱 워십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7월 28일(주일) 오후 12시 본당에서 심형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찬양집회 블레싱 워십을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최창섭 목사 성역(담임목회) 45년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

에벤에셀선교교회는 7월 21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최창섭 목사 성역(담임목회) 45년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를 개최한다.

▲ 문의: 718-570-5858

뉴저지갈보리교회, 말씀나눔축제

뉴저지갈보리교회(문정웅 목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김기석 목사를 초청하여 말씀나눔축제를 갖는다.

▲ 문의: 732-613-4930

뉴욕세광고교회, 부흥사경회

뉴욕세광고교회(담임 이민영 목사)는 7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본교회에서 '제자들(Disciples)'이라는 주제로 노진준 목사(PCM : Preaching Coaching Ministry) 공동대표, 전 LA 한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7월 26일(금) 저녁 8시 '다니엘(단 6:10-16)' 7월 27일(토) 아침 10시 '도마(요 11:11-16)' 7월 27일(토) 저녁 8시 '베드로(요 18:15-18:25-27)' 7월 28일(주일) 오후 2시 '바울(엡 3:1-9)'로 진행된다.

▲ 문의: 이민영 목사 914-874-3606, nyskch@gmail.com

뉴욕장로연합회, 제3회 목사장로조 탁구대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7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뉴욕탁구장에서 제3회 환상의 목사장로조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목장 리그(목사&장로), 장부 리그(장로 부부)로 2개 리그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한 팀당 50불이다.

▲ 문의: 917-204-9879, 516-369-8602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영생 하나님 아기학교

필라델피아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주간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하나님)을 갖는다. 대상은 앉기 시작한 0세부터 3세까지 아기와 엄마이며 등록비는 무료이다.

▲ 문의: 강은혜 사모 267-347-2866

뉴욕늘기쁜교회, 시편23편 사경회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는 7월 21일(주일) 오후 7시30분 본교회에서 윤태호 목사(JDM 대표)를 강사로 초청하여 '기막힌 은혜를 누리시다!'라는 주제로 시23편 사경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359-0691, 646-287-7169



킨즈장교회 2024 단기선교파송예배 중 선교팀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킨즈장로교회, 2024 여름 단기선교 파송

총 5개국 대상, 6팀 총 86명 참가, 캄보디아 벤엘국제학교 완공

킨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7월 6일(토) 오전 6시에 2024 단기선교파송예배를 드리고, 여름 단기 현지 선교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무슬림 대상 킴프 미션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해외 현지 선교를 재개하여 캄보디아, 케냐, 카자흐스탄, 혼두라스에 있는 현지 각 선교지에 단기선교팀을 구성해 7, 8월에 걸쳐 파송하여 연초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올해 중국 단기선교는 현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올해 킴프 미션은 해외 선교가 재개됨에 따라 다소 축소되었지만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역으로 새롭게 진행된다.

민족 각 사역 성도와 중고등부 교육 부서의 교사, 학생들로 구성되어 총 8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각 팀은 담당 교역자의 인도와 현지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선교사역을 진행한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7월 20일(토) 오전 7시(미 동부시간)에 열리는 벤엘국제학교 완공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학교가 새롭게 열리게 되면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을 분담하여 감당할 예정이다. 킴프 장로교회는 캄보디아에 파송한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선교를 진행해 왔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허가를 정부로부터 인가받아 벤엘국제학교 건축을 진행해 온 바 있다.

(김재상 기자)



수도권 집회 런칭팀 현장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 집회 개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및 워싱턴DC 교협 지도자들 참석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나성균 목사)가 주최하고 웨사픽 신학대학원이 주관한 수도권 집회가 7월 8일부터 사흘간 메릴랜드 웨사픽 신학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및 워싱턴DC 교협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이라는 주제로, 김병은 총장, 임상훈 교수, 손영환 박사, 김성철 교수의 연속되는 강의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크게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 나성균 대표회장은 둘째 날 오전 시간에 '위기시대의 영성 설교'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어서 미기총 주최 런칭 미팅을 통해 나성균 대표회장은 그동안 미기총의 걸었던 길과 앞으로 나아가길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함으로 많은 동의를 끌어냈다. 한편 이 지역에서 제 11대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이영섭 목사(볼티모어장로교회 원로)는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에 배가 살아야 함"을 역설해 큰 은혜를 끼쳤으며 런칭에서도 지나온 미기총 간증을 나누며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연합사업에 큰 힘을 쓰고 있는 차웅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도 큰 격려와 후원으로 힘을 더했고, 회계를 맡은 백주성 목사부부도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으며, 둘째 날 새벽 영성 집회에서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찬양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위로와 도전을 줬다.

(정리: 김재상 기자)



썸머캠프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저지 산돌교회, 무료 썸머캠프 개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썸머 캠프

뉴저지 산돌교회(담임 김대호 목사)는 재정적인 이유로 캠프에 가지 못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산돌머캠프를 7월 8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한 주간 개최했다. 산돌교회는 2023년부터 산돌머캠프를 무료로 실시해 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브챌스(Give Chances)와 손잡고 개최하는 산돌썸머캠프는 올해 30명의 학생이 전액 무료로 캠프에 참석했다. 뉴저지 산돌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산돌썸머캠프와 레이첵프로젝트를 위해 펀드레이징을 통해 재정을 모았고, 학생들이 돕기 위해 20명이 튜터들이 마음을 모아 진행했다. 산돌교회 출신 대학생들과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튜터들은 지역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료로 봉사함으로써 섬겼다. 산돌썸머캠프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 영어, 과학 등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다음 학기에 배울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학습 진도가 빠른 학생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워크 시트 자료를 제공했다. 산돌교회 자원봉사자들은 조를 짜서 5일간의 간식과 점심을 준비하며 섬겼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힌두, 무슬림 학생들도 산돌교회에서 제공하는 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는 학부모들도 산돌교회 사역자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난 부활절에는 인도 학생이 세례를 받는 감격적인 일이 있었다. 방과후 학교에 계속 참여한 이 학생은 교회가 자신을 가축처럼 대우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브챌스 방과후 학교와 산돌썸머캠프를 총괄하는 남기혁 목사는 아이들이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2024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발표 후 사진 촬영했다

2024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희년으로 자유하라'

강사 김홍양 목사 8월 23일 ~ 26일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7월 13일(토) 오후 2시 뉴욕교협사무실에서 2024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일정, 장소, 강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24 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는 8월 23일(금)부터 26일(월) 프라미스교회에서 김홍양 목사(제주제일교회 담임)를 초청하여 '희년을 자유하라 (레 25:10)'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김홍양 목사님은 제주제일교회에서 시무하는 성결교 교단 목사님으로, 이민교회에 적합한 순수한 목사"라고 소개했다. 또한 "열

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목회로 어려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분이며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며 2000여 차례의 집회를 인도한 분이기에 이번 강사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준비위원장 김홍석 목사는 교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큰 교회의 협조가 필요하며 교인들이 할렐루야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회장님을 도와 연락하고 있다. 임원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구본부하는 박태규 목사를 도와 뉴욕 교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시간에 어린이 할렐루야대회는 임지윤 목사(어린이양육교회)가 진행한다. 또한 8월 26일(월) 오전 10시에는 교역자 및 목회자 세미나로 이어진다. 2024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는 7월 18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 늘기쁜교회(김홍석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D)

2024차 해외성회(240th Overseas Assembly)

1(월) 오전 1(월)~3(수)

미국(USA) 아틀란타 공회 도차
미국(USA) 아틀란타 2024 NYSKC FAMILY Conference
주최 : NYSK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서울),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뉴욕), 실무회장 이병환 목사(워싱턴DC) 동남부본부장 남궁준 목사(아틀란타), 준비위원장 김효열 목사(아틀란타), 대회장 김은목 목사(LA), 학회실장 황다모 목사(캐나다 몬트리올), GTS 교수 전병수 목사(알버타) 학생처장 이용화 목사(캐나다 몬트리올), 학회장 최기성 목사(뉴욕), 동남부본부장 손기성 목사(워싱턴DC), 남부본부장 기영철 목사(달라스), 선교사 손일택 목사(아틀란타)
장소 : 아틀란타 서공회교회(교회명 목사)
미국(USA) 독립기념일 행사
미국(USA) Allanta Prayer Center 성회 (아틀란타 우리기도원 원장 신사광 목사)
4088 Sardis Church Reed Buford GA 1-405-777-0090

6(토) 미국(USA) UKPC 동남부노회(노회장 김영민 목사) 교역자 세미나 1-404-642-4233
미국(USA) 1부 오전9시, 2부 오전11시 Duluth 주성령교회(김영복 목사) 1-404-648-4233
1795 old peach tree Rd RD, NW Duluth GA 20097
인천공항 도착

9(화) 저녁 10(수) 오후 11(목) 저녁 12(금) 오전 12(금) 오후 13(토) 15(월) 오전 16(화) 오후 17(수) 저녁 19(금) 저녁 21(주) 저녁 22(월) 저녁 23(화) 오전 23(화) 오후 24(수) 오전

서울 Training Center Revival
황교안 비전캠프(김시량 목사) 010-3621-3383
천보산 기도원 (원장 옥광석 목사) 주최 : 국제예수교교회 (대표회장 임영술 목사) 010-9013-0693 (사무처장 임재영 목사) 010-6713-0388
인산 큰기쁨교회(김순희 목사) 주최 : 열방선교회총재 김용희 목사, 대표회장 김순희 목사 010-7291-0291
K. Special Event Blessin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6603-4997
한일기도원(원장 이영근 목사) 주최 : 글로벌복음교회 (대표총재 피종진 대표회장 정태은 목사) 010-2296-0675
서울 임마누엘교회 (최옥순 목사) 010-2213-4448
서울 강남반석교회 (김시량 목사) 010-8331-3431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파주 열린교회 (임은경 목사) 010-2473-8023
부천 천성교회 (이향원 목사) 010-9020-8893
인천 새빛교회 (우용석 목사) 010-9264-9843
한일산기도원 (원장 이영근 목사) 010-7404-8541
주최 : 글로벌복음교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010-2296-0675
구리 성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 지선협 나라사랑 기도성회
엘리기도원 (서재은 목사) 010-7142-254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 World 기독교총연합회 (대표교주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진안 임마누엘 병천수영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박복주 부목사 010-4132-11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07(동호문) Fax. 02)401-7770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홍현숙 기자)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간다의 UWMF 대학교 후원회 기자회견

“UWMF가 우간다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

월드미션프론티어(대표 김평욱 선교사)가 지난 2010년 설립한 월드미션프론티어대학교(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이하 UWMF) 후원을 위한 기자회견이 10일(수) 오전 11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 목사)에서 열렸다.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난민 구제와 어린이사역으로 1기 사역 기간 중인 1996년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간다대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지난 2010년 3월 우간다신학교, 대학원(Uganda Theological Seminary)을 개교했으며, 2011년 UTS를 ATS(Africa Theological Seminary)로 학교 명칭을 개명하고 르완다로 이전했다. 또한 2012년 우간다에서 목회자 평생교육원인 KBBA(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를 세우고 신학교사역을 재개했으며 2015년 KBBA와 ATS가 합병하고, 우간다 교육부에 UWMF 인가를 신청, 2017년 아프리카 신학교육협의회(Association for Christian Theological Education in Africa, 이하 ACTEA)에 학위인증을 신청했으며 2021년 3월 ACTEA로부터 학위인증을 받아 Diploma, B.A, M.Div.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UWMF는 또한 지난 2017년 5월 일반대학교 설립을 위한



우간다UWMF대학교 후원회 관계자들

'Letter of Interim Authority'를 취득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대학교 개교를 위해 2020년 7월 고등교육국(NCHE)에 Provisional License(신학과, IT학과, 행정학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7월 NCHE 카운실 멤버들의 현장방문이 있었고 현장방문 후 받게 된 권고 사항 등을 시정해 나가고 있다.

UWMF의 총장인 김평욱 선교사는 “신학과와 경우 미국 갈보리대학교(Calvary University)에 철학박사(Ph.D.) 입학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1월부터 한국 햇볼 트리니티신학원에서 Th.M.과 Ph.D.과정 입학이 허가되어, 햇볼트리니티신학원과 UWMF의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미드웨스턴신학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간다 정부에서는 I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UWMF를 통해 첨단과학인재들이 배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한 교수 확충 및 컴퓨터 교체 등을 비롯한 시설물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5일 발족된 우간다 UWMF 후원회의 김호용 회장은 “우간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며 마치 한국의 6-70년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한

국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교육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UWMF가 우간다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많은 후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원회의 추진 사역으로는 △교수 확보 및 현지 강의(온라인 강의 및 1주일 동안의 인텐시브 수업), △단기 선교단 모집 및 파송, △UWMF 대학 재정지원 등이 있는데 현지인 교수 지원(월 500 달러), 재학생 장학 지원(월 50달러, 1년 600달러), 석박사 과정 교수요원 유학지원(1년 6천 달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축 및 시설지원(도서관 및 e-learning 시스템, 학교용품), △중보기도, △신학교 졸업생 목회자의 교회 개척과 지원 등이 있다. 우간다 UWMF 후원회는 회장 김호용 목사, 총무 김종희 권사, 회계이 에스더 권사로 구성됐다. 후원금은 Pay to order에 CLWMF를 적으면 되며 보낼 곳은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이다. ZELLE로 보내는 경우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 714-501-888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동양선교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예배에서 김동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창립54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달려갈 때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창립54주년 기념 부흥사경회가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지훈 목사는 “동양선교교회가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선교, 교육, 봉사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지훈 목사 사화로 14일(주일) 오전 9시30분 진행된 부흥사경회 마지막 날 집회는 한건수 장로가 기도했

으며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김동호 목사가 ‘하나님만 섬기라(수 24: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김동호 목사는 자신이 걸어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를 전하며 교인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심어 주었다. 김 목사는 “담임목사로 처음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 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복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길이며 누구나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에서 은퇴한 뒤 교회 신세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로 살아가더라도 100점 만점을 받은 자처럼 복을 내려주신다”며 “동양선교교회가 과거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으로 현재 주일 예배에 빈자리가 많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양선교교회가 과거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주변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예전보다 더 큰 부흥을 맞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말씀선포에 이어 김지훈 목사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했으며 김동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조명한 목사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출판감사예배
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인 조명한 목사의 신간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출판감사예배가 20일(토) 오후 4시 용수산 식당 2층에서 갖는다.

▲ 문의: (818)624-2190

2024 세계선교교회 장학생선발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선 목사)에서 2024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남가주거주자 및 남가주 소재의 정규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신학생, 목회자(전도사) 자녀 및 선교사 자녀이다. 신청은 본교회 홈페이지(www.wmcla.com)에서 하면 된다. 마감 7월 28일(주일).

▲ 문의: (213)388-1927

고 서정이 목사 천국환송예배

남가주교회협의회 제24대 회장 서정이 목사가 7월14일(주일) 오후 10시 소천했다. 향년82세. 천국환송예배는 22일(월) 오전 11시 LA한국의장사(2025 W. Washington Blvd. LA)에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장으로 갖는다.

▲ 문의: (213)999-1923

대흥장로교회 여름특별세미나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는 여름특별세미나를 '슬기로운 청지기 생활'이라는 주제로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재학 목사(디모데성경연구원 대표)이며 일정은 26일(금) 오후 7시30분, 27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8일(주일) 오전 8시30분, 11시이다.

▲ 문의: (310)719-2244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의교실 디즈니랜드 방문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과 "Brian & Iris Na Foundation"에서는 오는 7월22일(월) 밀알 토요일 사랑의교실과 ANC 은누리교회 GM에 소속된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 스태프 등 총 165명이 모여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애인 친구들 중엔 아직 디즈니랜드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마칩 여름방학을 맞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Brian & Iris Na Foundation'에서 기금을 후원해 주셨고, Brian & Iris Na의 자제분 'Ellie Na' 역시 'gofundme'를 개설해 펀드레이징을 마린 중에 있다. 특별히 Youth 봉사자들에게도 장애인 친구들과 하나되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다. (https://www.gofundme.com/f/support-disneyland-journey-for-disabled-youths)

▲ 문의: (562)229-0001

제8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베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는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 줄 제8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Discipleship(제자도)-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란 주제로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강택 목사(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조영천 목사(아틀란타 새교회), 주은재 목사(필라델피아 목양교회), 홍승민 목사(브니엘 한인장로교회)이며 일정은 19일(금) 저녁 7시 30분, 20일(토) 오전 6시, 21일(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2시이다.

▲ 문의: (949)854-4010

엄영민 목사 파송예배

오렌지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본교회 엄영민 원로 목사의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파송예배를 21일(주일) 오전 9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714)899-9191

생수의강선교교회 '5인5색의 7월' 집회

생수의강선교교회 '5인5색의 7월'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3일 이종필 목사, 10일 김정호 목사, 17일 박종호 장로에 이어 오는 24일은 남성권 목사가 31일에는 이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 문의: (562)653-0168



은혜사랑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은혜사랑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감사예배

안수집사 김용우, 권사 오숙자 임직

은혜사랑교회(담임 강영숙 목사) 창립 18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4일(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열렸다. 강영숙 목사는 “은혜사랑교회의 18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심을 감사드리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헌신해주셨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18년의 시간 속에 감사할일도 많았지만 예배를 드릴장소가 없어서 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사랑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한다. 오늘이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라 생각하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기대하며 데살로니가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강영숙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준남 장로가 기도했으며 창립18주년을 축하하는 한국 마석에 있는 독거노인 사역을 하는 비전 나눔교회와 배승환 선교사(아르메니아)의 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강영숙 목사가 '자랑이 되는 교회(살후 1:3-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용우 집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집사와 권사로 임직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 감사한다. 맡겨진 사역에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남선교회 성가단이 특송했다. 임직감사예배

는 김영원 목사(은혜와진리교회)가 권면했으며 임직자들에게 대한 서약문답, 안수식, 선포가 있었다. 이어 김반석 목사(시온선교교회)가 축사했으며 김용우 안수집사가 답사했다. 이날예배는 강영숙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평강교회 제2회 블레싱콘서트 성황

“은혜와 감동이 어우러진 축제”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는 제2회 블레싱콘서트를 13일(토) 오후 5시에 성황리에 열었다. 송금관 목사 인사말과 여승훈 목사(남가주보배로운교회) 기도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정종원 목사, 소프라노 김현주 권사, 안용대 목사, 피아노트리오(피아니스트 나경희, 바이올리스트 황여주, 첼리스트 장성희), 조이여성합창단(지휘 이영희), 소프라노 이영희, 베이스 김성현이 출연하여 은혜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는 이은수

목사의 무대에선 청중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김현주 권사의 공연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종원 목사, 안용대 목사, 피아노트리오, 베이스 김성현의 무대에선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어 조이여성합창단의 무대에서는 청중들과 함께 실용통 시간을 가졌으며 몇 동요를 함께 불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날 음악회는 이상기 목사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평강교회 제2회 블레싱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새들백교회 주회 소그룹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사진=조앤 남 코디네이터)

새들백교회, 한인목회자 대상 최초의 소그룹 컨퍼런스 성료

새들백교회 주회 소그룹 컨퍼런스가 지난 7월 9일에서 10일까지 양일간 24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액셀러레이트(Accelerate) 컨퍼런스에는 새들백 교회의 한인 목사인 케빈 리 목사가 강의를 맡았다. 미주지역 한인 교회 목회자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참가하여 건강한 소그룹 성장 계획에 대한 토론과 친교 시간을 가졌다. 미주 한인 교회 및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소그룹 컨퍼런스는 새들백 교회 역사상 올해가 처음 있는 일로 참가자들은 소그룹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소그룹을 성장시키기 위한 강의를 듣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에티오피아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 후원 한국 입국해 심장병 수술 받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6·25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손자인 테카렌 메릿 베우자옛(7군)을 비롯해 이 나라 아이 5명의 심장병 수술비를 후원했다고 16일 밝혔

용 등도 전액 지원했다. 아이들은 지난달 24일 한국에 입국해 심장병 수술을 받았으며, 퇴원한 뒤인 지난 14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사진). 이영훈 목사는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며, 아이들은 한국 체류 기간 익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예배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의료분과위원장 윤호현 장로를 비롯해 김충걸 세종병원 고객지원 이사, 신광철 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윤 장로는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심장병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준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18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하나님의 군대 '1800 찬양대' ...

감동과 전율로 하나님 은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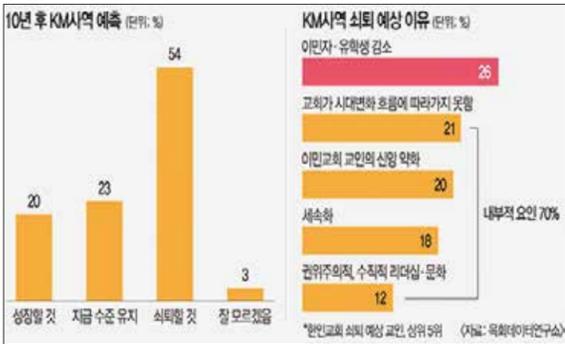
부산지역 1800여 교회 연합 성가대가 성공적인 9·8 해운대성령대집회를 기원하며 천상의 화음으로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렸다. 부산지역 목회자들은 9·8 해운대성령대집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타는 운동이 되도록 다짐을 하며 연합기도에 힘쓰고 있다. 빗줄기가 강하게 내리던 14일 저녁 9·8 해운대성령대집회 네 번째 징검다리 집회로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열린 K-가스펠 문화축제 및 714기도대성회가 많은 이들의 참여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2시간 동안 뜨거운 환호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신앙의 열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먼저 이한진 상명대학원 겸임교수와 섹소포니스트 심삼중 교수가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관객들과 호흡하며 멋지게 연주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기에 장한이 MBN라스트싱어 우승자는 '행복' '은혜'란 복음송을 불러 관객 모두를 '매창'으로 인도했다. 이어진 지명현 찬양목사(소리연)겸 방송인의 '성도여 다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장근희 국제 NGO 기아대책 홍보대사의 '험한 십자가 능력있네' 'Oh Freedom' 최인혁 월드비전 친선대사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여 인도하소서'로 이어진 무대는 열광의 도가니였다. '축복송'의 작사·작곡자인 송정미 사모는 '오대 한민국'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로 참석자 모두를 애국가로 만들기 충분했다. 송정미 사모는 "우리가 선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거다. 너는 크게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을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백성에게 알리리라"고 외쳤고 관객들도 동참해 함께 소리 높여 외쳤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전출연진과 관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 '물이 바다 덮을 같이'를 합창할 땐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연출됐다.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끝나고 '1800 찬양대'의 합창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참석자 모두는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무대였다.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살아계신 주'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전진하며 승리의 나팔을 부는 영광스런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합심기도는 이종훈 목사가 인도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만민이 주님만을 경배하며 높이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석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다. 호산나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명 가스펠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찬양으



석된다.

2000년부터 14년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와 시카고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했던 양현표 총신대 교수는 “한인교회 목회를 처음 맡았을 때와 한국에서 돌아올 당시만 비교해도 이민 목회 환경이 크게 달랐다”며 “이제 이민자들에게 한인교회는 필수적인 코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KM 한인교회들은 현지화되면서 쇠퇴하는 수순”이라며 “단독 건물을 지녔고 아시아계 등 다민족이 모인 한인교회들이 향후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인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들에게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39%)를 주문했다. 이어 ‘공동체성 강화’(30%)와 ‘소그룹 사역’(20%) ‘전도’(20%) 등이 한인교회의 선결 과제로 요청됐다. 이번 설문은 미주 한인교회에 출석 중인 19세 이상 기독교인 1169명과 미주 한인 교회 영어사역(EM) 사역자 83명을 대상으로 각각 지난 2~3월, 지난해 3~4월에 진행됐다.

위기의 한인교회, 교인 절반 "10년 뒤 쇠퇴할 것"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주 한인교회 실태와 미래'

미주 한인교회 교인 2명 중 1명 이상이 10년 뒤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주 한인교회 실태와 미래' 보고서를 보면 10년 뒤 한국어를 쓰는 KM(Korean Ministry) 한인교회가 쇠퇴할 거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인교회 교인 절반 이상(54%)은 KM 한인교회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거라 답했고, 사역자 10

명 중 4명(39%)도 쇠퇴를 예측했다.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양측 모두 20% 수준에 그쳤다.

교인들이 이같이 예상한 이유로는 '이민자·유학생 감소'가 26%로 가장 많이 지목됐고, '교회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21%)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20%) '세속화'(18%)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환경(이민자·유학생 감소)보다 교회 내부 사안이 교세 축소의 요인으로 분



"광야와 같은 직장생활 속에서도 신앙 실천해야..."

'제22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금식기도회'

"일터인 직장을 선교 현장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직장선교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크리스천 직장인을 일터 사역자로 세우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대표회장 이훈

장로)와 서울시침기독교교회(회장 안금희 집사)가 16일 서울시침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에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를 주제로 개최한 '제22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금식기도회' 현장을 소개했다. 기도회에는 한직선 회원과 서울시침, 25개 구청 등에 소속된 크리스천 직장인

이 참석했다. 이날 한직선 대표회장인 이훈 장로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실천 각성운동'을 선포하고 신앙실천 설계명, 직장선교사 매뉴얼 등 다양한 실천사항을 공유했다.

기도회는 1부 예배, 2부 합심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서울시침기독교교회장인 안금희 집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인천직장선교연합회장인 김상현 장로가 헌금 기도했다. 또 한국직장선교연합단이 특송을 맡고 서울시침선교회 지도 목사인 윤장현 행복한제자교회 목사가 '인생의 재건'(느 1:1-5)을 주제로 설교에 나섰다.

윤 목사는 "과거 가난과 어려움으로 허덕이던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하게 됐다"며 "루비 켈트릭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만큼 기독교인의 기도가 우리나라의 성장 비결"이라고 말했다. 윤 목사는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며 기독교 인구는 바닥에 떨어지고 기독교 신도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인공지능이 편리성이 있는 만큼 목회자가 쉽게 설교를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에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지 인공지능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지침에는 "설교문은 성령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터 위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만들어진다"며 "인공 지능이 생성하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본 목회자들의 의견도 이와 비슷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A목사는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에



저출산 극복 위해 손 모으다...

초교과 장로 기도회 열려

한국교회 주요교단 장로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손을 모았다.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은혜광성교회(박재신 목사)에서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의회(대표회장 김영구 장로) 주최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도회'에서다.

한국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도회에서는 장로들이 교단을 대표해 돌아가며 특별 기도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는 '한국의 저출산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강신욱 장로는 '대한민국의 구원과 발전을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는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장백석 전국장로회 회장 탁홍식 장로는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의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협의회는 기도회 전 발표한 취지문에서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따르기 마련인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기 위해 기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안 하는 비혼적 사고"라며 대안으로 "결혼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지원책 강화" "부부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지역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적 접근" "다자녀 가정 복지 혜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예배 설교자로 나선 박재신 은혜광성교회 목사는 "가정이 회복될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성숙과 온유를 바탕으로 한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교회와 교단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의회는 예방합동 예방통합 예방

백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주요 교단 장로부총회장들의 모임으로 지난 해 12월 출범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문장로와 기성 노성배 장로가 신입 회원으로 인사했다.

"시가 만든 설교, 온전치 못해" ... 교단 윤리 지침 나왔다

예장통합,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져야" 강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설교는 온전치 못해'라는 연구안을 마련했다. 16일 예방통합에 따르면 정책기획및기독교개혁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제109회 총회에 청원한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목회자들이 이를 목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교회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절반(47%) 정도가 인공지능 챗GPT를 직접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87%) '설

교문 작성'(29%)에 활용하고 있었다. 인공지능 사용이 윤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34%) '부적절하다'(33%) '모르겠다'(33%)가 비슷한 수치로 나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위원회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지 인공지능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지침에는 "설교문은 성령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터 위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만들어진다"며 "인공 지능이 생성하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본 목회자들의 의견도 이와 비슷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A목사는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에



선교의 창 (24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한인 세계선교의 5대 지향점

오늘 기독교 선교는 안, 밖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COVID19 영향으로 선교의 모체인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었다. 그 영향으로 선교열기가 식고 있으며 파송 선교사 수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연령 별 실태가 역 피라미드형을 띠어가고 있다. 선교의 주도세력이었던 유럽교회는 파산을 맞은 것처럼 심각하다. 그 땅은 이미 피 선교지로 바뀐 지 오래다. 미국교회는 현재 19세기 후반의 SVM 운동으로 선교가 활화산처럼 타 올랐던 때와 너무 다르다. 상당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신앙 노선에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한인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지난 사반세기 짧은 선교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한 발전과 성과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은 가시적 업적 뒤에 가려진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다. 위기가. 그런데도 교회들은 너무 태평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우리가 지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성경에 기초한 선교원리에 전착(穿鑿)해야 한다.

1. 본부 사역 강화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전쟁

에서 전략본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파송체로서 본부 행정 사역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는 거룩한 삼각관계 구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상적이다. 선교사들의 연령 별 실태가 역 피라미드형을 띠어가고 있다. 선교의 주도세력이었던 유럽교회는 파산을 맞은 것처럼 심각하다. 그 땅은 이미 피 선교지로 바뀐 지 오래다. 미국교회는 현재 19세기 후반의 SVM 운동으로 선교가 활화산처럼 타 올랐던 때와 너무 다르다. 상당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신앙 노선에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한인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지난 사반세기 짧은 선교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한 발전과 성과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은 가시적 업적 뒤에 가려진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다. 위기가. 그런데도 교회들은 너무 태평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우리가 지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성경에 기초한 선교원리에 전착(穿鑿)해야 한다.

발굴 및 훈련과 파송, 선교사 후원금 관리 및 모금, 선교사 보호 및 지원, 선교 전략 기획, 선교 회보 및 자료정리, 단기 선교 팀 기획 및 진행, 선교 세미나와 선교대회를 통한 선교 동원,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등이다. 유감스럽게도 한인 선교는 본부 행정 사역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저 후원금 모아 선교사에게 보내주기 급급하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이들이 개인이나 개 교회차원에서 나갔기에 아예 본부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관건

은 본부 사역을 선교사 파송 이상으로 비중을 두고 지원하며 활성화 시키는 일이다.

2. 선교의 주력부대

서구 선교의 주류는 각 분야별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인 선교는 목회자 중심 인력구조이다. 이러한 인적 패러다임으로는 미래 선교를 깊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앞으로는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들을 주력부대로 앞세워야 한다. 이유인즉, 저들은 어느 사회에 가도 신봉위장을 할 필요가 없다. 자비량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다. 창의적 접근지역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현지인과 접촉점을 갖는데 용이하다. 다수를 단기간에 훈련시켜 보낼 수 있다. 단 전문인 선교사란 선교를 위해 자기 직업이나 전문성을 수단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현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목회자 선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다수의 전문인 사역자

는 곳마다 오직 영혼들을 치유하며 필요를 채우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양육에 몰입하셨다. 사도바울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과 일꾼 양육에 치중했다. 그의 사역적 패턴은 개척(Pioneer), 양육(Parent), 동역(Partner), 참가(Participant)였다. 이 원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 중심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3차전도 여행과 로마행 등에서 보듯 바울은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나중에는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히 위임해주고 새로운 개척지로 나아갔다. 따라서 선교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선교에서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4. 자립적 선교

중국 선교사였던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John L. Nevius)는 1890년 내한하여 당시 한 국에 와 있던 미국인 젊은 선

간 선교한 경험을 토대로 자체 소화한 선교 신학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는 현지인을 도울 때 이러한 자립적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특히 물질은 현지인의 눈을 어둡게 하며 독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현지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주며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열악한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3차 정신 같은 자립원칙이 없을 때 현지인은 성장하지 못하고 종속적이게 된다. 나아가 선교의 재생산이나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선교사가 불의의 사건 사고로 유고 시가 될 경우 선교 사역은 닫혀 질 수도 있다.

5. 글로벌한 팀 선교

세상의 전쟁은 문명을 따라 발달해 왔다. 고대시대에는 평면 위에서 싸우는 2차원의 전쟁이었다. 근대 산업화 이후에는 3차원의 전쟁으로 바뀌었다. 오늘 정보 사회는 4차원의 전쟁 개념이다. 현대전은 람보 같은 1인 다역(一人多役)이 아니라 다인 1역(多人一役)으로

는 자가 10명은 된다. 따라서 선교지의 개념도 이제는 지역에서 사람 중심으로 빠른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연합적인 팀 사역이 아니 고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6. 맺는말

어떻게 하면 한인 세계선교가 세속의 도전에 휘둘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전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인 선교 방향의 5대 지향점을 따라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먼저 본부 행정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 선교사가 행정본부를 중심으로 후원교회들과 거룩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교 주력 부대를 목회자에서 자비량 전문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아가 선교 현장에서 금권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 사역을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일꾼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자치,

선교사역은 특수성, 전문성, 과중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효율적 사역을 위해서는 거룩한 삼각관계가 필요조건이다.
그것은 선교사-선교본부-후원교회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다.

와 소수의 목회자가 팀을 이루는 것이다. 각각의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연합 사역을 할 때 사역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사람 중심의 선교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사람 보다 가시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되기 쉽다. 선교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다. 예수님은 그 어디서도 회당이나 학교, 병원, 선교센터 등을 짓지 않았다. 주님은 발

교사들에게 선교원리를 특강하였다. 그 내용이란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 자급(Self-support)이다. 이 삼자 원칙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독립 정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스스로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 3자 원리는 한 국교회에 적용되었으며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이론의 원래 주장자는 헨리 벤(Henry Venn)과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이다. 그러나 네비우스가 중국에서 21년

철저히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로서 팀 작전을 이루어야 승산이 있다. 영적 전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것은 시작부터 시, 공간을 뛰어넘어 왔다. 더욱이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실시간 세계의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하루 안에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구촌이 하나의 글로벌 한 선교지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가 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자전, 자급이란 3자 신학을 도입해 시작부터 현지인들에게 자립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끝으로 예수 안에서 지역과 단체와 족속을 뛰어넘어 글로벌한 팀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텐트가 아니고 100층짜리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연합이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3강 아비멜렉, 입다, 삼손 그리고 레위인 (2) (사사기 9-21장)

사사들도 똑같았더라(2)

사사 입다 이후 3명의 사사를 사역 기록없이 삶의 단편만을 말합니다. 사사 입산은 7년간 사사로 있었고 아들 30명에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밖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삿 12:8-10). 직분은 사사였지만 자기 원하는대로 살았습니다. 입산을 이어 사사 엘론은 10년간 사사로 있다가 죽었습니다(삿 12:11,12). 그리고 엘론을 이어 압둔이 8년간 사사로 있었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고 합니다(삿 12:12-15). 사사로 있는 기간이 짧은데 아들만 40명이었으면 사사가 되기 전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사였지만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사이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 '인자로, 종으로 사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40년동안 넘겨주십니다(삿 13:1).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을 장년의 모습에서 부르신 것과 달리 출생 전부터 삼손을 구별하시고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삿 13:2-25). 이 때 보냄을 받은 사지는 이미 앞에서 그라하고 이후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습입니다(삿 13:18).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자기 임하시매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나실인은 구별된 자들입니다(민 6:21). 이 나실인의 계보는 삼손(삿 13:2-5)과 사무엘(삼상 1:5,19,20)을 지나 세례 요한(눅 1:5-25, 57-66)과 예수 그리스도(눅 1:26-35, 2:1-7)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구별됨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구별된 백성으로(출 33:16/ 레 11:44, 20:24,26) 영적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들이 자제적으로 거룩하기 때문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병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삿 13:5). 그러나 그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실인으로서 시체는 부모와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민 6:6,7)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먹었고(삿 14:8,9) 포도주와 독주 뿐 아니라 포도나무 소산은 씨와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되는데 술이 빠질 수 없는 잔치를 즐기고(삿 14:10-20) 여러모로 사사로서도 나실인으로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 영웅'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압제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 시고 그의 삶의 단편들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삿 14:4)고 하여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들의 '성문'을 빼어 가난한 땅에

들어옵니다(삿 16:1-3).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창 22:17) 삼손을 통해서 1차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 전멸되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분적이었지만 다른 사사들 보다 더 함께하였었습니다(삿 13:25, 14:6,19, 15:14). 삼손이 자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삼손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치명적 패배를 남깁니다. 후에 성경을 한량없이 부으심 받을 예수 그리스도가(요 3:34) 이 땅에서의 역사적 죽음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하실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은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온' 그리고 다시 '범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던 때, 블레셋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도 약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기가

지 왔는데 이전 아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다스림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부족해도 삼손이 사사인 것을 압니다. 입다의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쉬우니까 이복 형제들에 의해 쫓겨난 입다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살려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스림을 즐기며 사사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삿 15:9-13).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은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있었다고 합니다(삿 15:20, 16:31). 그러나 그는 보기에 좋은대로 여자를 취하다가(삿 14:1, 15:1, 16:1,4) 여인으로 말미암은 싸움을 싸웠고 살인을 했고(삿 14:19, 15:3-17) 계속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시하다(삿 14:19, 15:18,19, 16:3) 마침내 여자로 말미암아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가난한 정복 때 조금 남겨진 곳 '가사'의 감옥에서 멧돌을 돌리게 됩니다(삿 16:4-21). 사사로 20년, 200년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 다운 사사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비참한 이야기들을 '왕들의 이야기'에서 볼 것입니다. 악한 왕이 오래 통치하는 것은 백성에게는 '비극'인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머리털이 밀림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삿 16:22)는 말로 끝까지 삼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음을 통해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삿 16:30)고 성경을 말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단면입니다. 이미 삼손이 출생 전부터 선택을 받아 구별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전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을 '여호와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였습니까. 삼손이 결국 실패하고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실패하여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에서 멸망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과 같이 출생 전에 예고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께 의한 삶을 온전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어떤 사사도 아닌 진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구원의 선물 (눅 18:18-27) 찬 288장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에 매인 자로서 죄에서 자유 할 수 없는 것이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죄가 총동하면 죄로 총만하

게 되고 죄에 끌려 살게 된다. 죄의 종의 신부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일평생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나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룰 수 없다.

화 말씀의 실상 (눅 18:31-34) 찬 280장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때가 온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삼일 만에 살아나라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의 실상을 보지 못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며 영

적 실상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의 형벌과 죽음에서 구해 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신다.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 할 수 있다. 그 생명을 누림으로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수 영적인 눈이 열리다 (눅 18:38-43) 찬 214장

맹인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 다윗의 자손임을 알게 하셨다. 즉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됐다. 육신적으로 맹인이 눈을 떠 볼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으나 맹인은 믿음을 따라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간 것이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누리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 눈을 열어 주신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심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하심이다.

목 먼저 찾아 주신 은혜 (눅 19:1-10) 찬 289장

예수님은 구원하실 자를 찾아 주신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리 중에 나오게 하시고, 나무 위로 올라가 보게 하신다.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주셨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자가 스스로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삭개오 안에 이제까지 정복하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생각이 주님에게로

움직이게 하셨다. 죄를 지배하시는 능력으로 부르시는 결과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고자 하심을 듣고 삭개오에게 놀라운 자유함이 나타난다. 육신과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이 나타난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버치고 빼앗은 것은 사배나 값했다고 하는 것이다. 재물의 욕심에서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다. 주님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셨다.

금 왕에게 충성하라 (눅 19:12-27) 찬 323장

주인이 종에게 한 므나씩을 맡기고 장사하라고 한다. 나중에 결산할 때 열 므나를 남긴 종에게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한 므나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는 죽이라고 한다. 왕이 맡긴 인생에서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삶이 장차 주인 앞에서 나타난다. 왕에게 지금부터 충성하라. 만유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알고 섬겨야 한다. 왕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죽임을 당한다. 버림을 받는다. 왕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장차 왕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육신이 주는 거짓을 믿지 말라. 영원한 왕이시다. 왕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왕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토 영원한 나라의 왕 (눅 19:30-38) 찬 325장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 무리들이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외친다. 그 왕으로 인하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외친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소리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요 왕이시다 하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몇일 후에는 무리들이 죄 안에서 왕이 아니라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를 죽이라고 외친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과 죄 안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이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아니면 죄가 나타나지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교회음악 이야기(61)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삼위일체 영광송 (Trinitarian Doxology)

오늘날 불버리즘(Bulverism)의 영향이 일상의 여러 일들에 흔탁함을 더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찬송입니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 가장 뿌리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의 제자들과 속사도들이 목숨을 던지며 삼위일체 복음을 확장해 오던 가운데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종교나, 영지주의(Gnosticism) 등의 영향으로 삼위일체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 성지자 중 한 명인 아리우스(Arius, 250/256 - 336년)가 중심이 된 아리우스파에 의해 삼위일체론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견줄 수 없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종식된 후 첫 종교회의인 니케아 공의회(First Council of Nicaea, 325년)에서 대두된 가장 큰 논쟁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신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것이 결국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6-373)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에게 의해 삼위일체론을 정론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과 정통 수립 과정은 신학적 논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그 안에 드리는 찬양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세기 이후 교회들에서는 삼위일체 영광송(Trinitarian Doxology)을 찬양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세 절에 걸쳐 삼위 하나님을 나누어 찬양한다 마지막 사절에서 삼위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 위와 같은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찬송은 전능왕 오셔서(Come, Thou Almighty King)입니다. 이 찬송에 담긴 역사적 사건은 또 한 번 오늘을 사는 예배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슴에 담게 하는 큰 교훈을 줍니다.

미국의 독립 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로 알려진 롱아일랜드 전투(Battle of Long Island)가 1776년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일어났던 일로 미국이 독립(1776년 7월 4일) 선언한 지 약 일 개월 여 지난 후 미국의 군대가 영국군과 싸운 첫 전투입니다.

이 기간 중 주일날 미군과 영국군 모두 교회에 참석했는데, 작은 동지애와 긴장감이 공존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군인들은 회중에게 '은혜로우신 우리의 왕을 구하소

서' - (영국의 국가)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오르간 연주자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God save our gracious King, Long live our noble King...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왕을 구하시고 우리의 귀하신 왕 만세!

하지만 미국 회중들이 부르는 삼위일체 찬양에 그 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Come, Thou Almighty King, Help us Thy name to sing,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이때 불리워진 튜는 1745년 만들어진 영국 의 네셔널 안them 입니다. 1575년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의 『사회 예배를 위한 찬송집』 제22권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그 당시 이 튜를 그대로 하고 가사만 바꾸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곡 안에 두 개의 가사가 공존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작시자 비밀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찬송가와 영국의 국가와의 연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튜는 Italian Hymn" 이라는 곡조로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펠리체 자르디니(Felice Giardini, 1716-1796)가 1769년에 작곡한 것입니다. 이 작곡가는 이탈리아에서 출생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며 크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때 개신교의 철저한 후원자였던 헨리링 백작 부인의 요청으로 이 튜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첫 번째로 부각되었던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보게 되며 또 오늘날까지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에 거론했던 두 역사적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타나시우스파에 의해 정립된 삼위일체론은 이후 기독교 예배자들에게 찬송이 되어 지속적으로 불리며 그 당위성을 가슴에 새기게 하면서 흔들림 없이 삼위일체 신학을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1776년 8월 마지막 주일 롱아일랜드 어느 교회 예배에서 찬송가와 애국가라는 서로 다른 두 곡의 노래는 각 나라의 충성심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예배자들이 삼위일체 영광송(Trinitarian Doxology)이 중심이 된 찬양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부합된 원초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yoons@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로편지

우크라이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예고 없이 울리는 공습경보로 다들 긴장하는데 지난 7, 8일 아침엔 오래도록 울리는 경보를 뒤에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급히 뉴스를 보았더니 키이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어린이 암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많은 시민이 함께 구조,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계속되는 에너지시설 공격으로 전국적으로 하루에 받은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일상에 불편함은 있지만 다들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르니히우 중심으로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전쟁 난민과 사상자 가족들을 위해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피난 갔던 오벨리안교회 담임 왈로자 가정(8명)이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저와 함께 온라인 아침 경건의 시간을 드리기로 시작하자 많이 회복되어서 현재는 키이우 필포미르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고 7월 중순부터 일대일 코칭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우크라이나 거주를 위해 3개월(8-10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이민국에 1년 연장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기한 내에 순조롭게 연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협력하는 우크라이나 교회들(체르니히우, 까주잔카, 르쥐심, 손니짜, 스테판)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최근 징집연령이 27세에서 25세로 낮추어지면서, 르쥐심 교회 안드레 목사와 스페따 사모의 아들 지마와 곧 25살이 되는 왈로자 아들 안드레가 징집 대상입니다. 안드레는 8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알마티 소재)의 신대원 과정(3년)에 16명, 신학부 과정(4년)에 17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년 과정의 (매월 1과목, 매주 월, 화, 오후 7-9 수업, 알마티 시간) 수업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4일에 키이우를 출발해서 알마티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학생 및 졸업생들 심방과 신입생 영입을 위해서 5월 11일-20일까지 사마르칸트(재학생 5명, 졸업생 1명, 신입생 1명)와 타슈켄트(재학생 1명, 신입생 1명)를 방문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속에서도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사역하는 눈물나는 간증들과 그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33명의 재학생 중에 5명이 노트북도 없이 오직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 방문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기에 노트북이 없어도 안드레 목사/스베따 사모 찰린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바벨목사의 축복기도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알마티)가 학교이고 WIFI가 교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학습의 장이 열리게 되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6월 13일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에 석사 1명(낫사바, 비슈케 가정교회 리더자), 학사 1명(리파엘, 위구르족 가정교회 리더자)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전 6월 10-12일은 알마티 인근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이 주로 참석하여 수련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미국과 독일, 알타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흩어진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항공료 5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인이 대거 유럽으로 탈출했는데, 현재 약 600 만명이 유럽에 난민으로 정착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많이 유럽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영적으로 죽어가는 유럽을 깨우기 위해 이들 우크라이나 기독교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8월 한달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이주 난민 피난처에서 얼마의 후원도 해 주었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큰아들 근원이 가정은 모스크바에서 말은 일과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둘째 근석도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92년생, 서울 송파 IT기업 근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아내 김순희 선교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2년 5개월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하영/김순희 선교사의 사역비(생활비 \$1,200은 동결)도 증가되는데, 이를 위해 협력 및 동역할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2. 7월 중순에 왈로자와 안드레 목사와 함께 시작할 코칭 훈련을 위한 PPT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

옵소서. 그리고 8월에는 방학을 맞이한 신학생 중에 온라인으로 코칭 훈련을 할 예정인데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3개월간 우크라이나에 체류 허가가 되고, 우크라이나 이민국으로부터 1년간의 거주 허가도 잘 받게 하옵소서
4. 최하영/김순희 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최하영/김순희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

▲ 종족명 말랑쿠라반 종족

▲ 인구 약 18,600명

▲ 종교 민속 종교, 힌두교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크라팔주와 타밀 나두주에 흩어져 살며 농사, 사냥, 수렵을 한다. 여성들은 벨감을 주워다 팔아서 가족 소득을 보충하기도 한다. 말랑쿠라반어는 말레이알람어의 방언으로 타 밀어에서 많은 표현을 차용했다. 대부분 정령이나 조상의 영혼, 동식물 등을 숭배한다.

▲ 기도제목

1. 말랑쿠라반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2. 진리의 빛이 비쳐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생활도 풍족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4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인/터/뷰

미주기아대책 신임회장 유원식 회장

“KAFHI가 교회의 진정한 선교와 구제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리고 신앙과 삶의 균형, 축복의 통로가 됨을 적극 홍보 하고파”

한국기아대책을 이끌어 오던 유원식 회장이 미주기아대책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지난 2005년 한국기아대책과 인연을 맺었던 유 회장은 지난 9년간 한국기아대책 회장을 역임하면서 2배 이상 성장시킨 인물로 지난 6월 미주기아대책 회장으로 추대가 되어 한

인사회에도 구호와 선교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7월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남가주사랑교회(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던 제10차 KWMC 세계한인선교대회 방문차 남가주를 찾은 유원식 회장을 만나보았다.

메릴랜드 벨렝교회에서 출발한 미주기아대책(KAFHI: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목회자를 주축으로 운영됐던 KAFHI는 지난 6월 전문 CEO를 영입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경영인 출신인 유원식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영입을 한 것에 대해 유 회장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시무하셨던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남은 인생을 선교에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업인으로 30년을 일해

왔었는데 은퇴 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침 한국기아대책에서 회장을 공개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적 구호기구인 기아대책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지난 6월부터 KAFHI 회장으로서 미주지역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미주기아대책에 관해 유 회장은 “한국에 비해 미주기아대책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회장으로서 첫 과제는 바로 브랜딩(Branding)이라고 생각한다. KAFHI가 교회의 진정한 선교와 구제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리며 신앙과 삶의 균형, 축복의 통로가 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기아대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사역자들이 스텝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과 사역현장에서 실질적인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들며 “한국기아대책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현장에서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귀한 사역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 교회 등 건물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로 잘해나가고 있는 반면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 부족해보였습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유 회장은 건물을 지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

도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인들에게 경제교육, 의식교육, 보건위생교육 등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KAFHI가 교회와 선교사들과 함께 진행해 나간다면 한국이 복음화가 되는 과정에서 발전해나간 것처럼 선교현장 역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면서 “KAFHI는 하나님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pipeline)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투명성과 순수성이 담보돼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정기후원을 강화하고 평생후원자도 발굴해야 한다. 또한 후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고도화하고 연말까지 이리



유원식 회장

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 기아대책에서 9년간 일하면서 후원금 규모를 400억 원에서 840억 원으로 성장시킨 유 회장은 미국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성장을 기대하며 한국기아대책의 사업장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회장은 “팬데믹 이후 한인교회들이 위협받고 있지만 선교 잘하는 교회가 항상 부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

였다. 유원식 회장은 한국 HP 부사장, 한국선마이컴시스템즈·한국오라클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2015~2024년 한국기아대책 회장을 역임했다. 기아대책 국제연대 이사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미주기아대책에 관한 문은 (703)473-4696(정승호 사무총장)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베드로 진서 25

눈 떠!



예전 청년회를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집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한 청년이 신도 벗고 옷도 걸어야겠기에 안고 있던 아들을 옆의 청년에게 맡기자 아이가 낯선 얼굴에 악을 쓰며 울었다. 감당이 불감당이였다. 급히 신을 벗고 뒷도리는 옆에 팽개친 채 아들을 안았으나 아직도 남의 품이라 생각한 아들은 계속 울었다. 그때 아빠가 한 말, “눈 떠! 눈 떠!”였다. 눈을 떠보라 아빠가 안았다. 아빠가 안았으니 눈을 떠서 확인하고 울음을 그치라

는 말이였다. 그 청년이 아빠다 아빠다 하지 않고 눈 떠! 눈 떠! 한 말이 기억에 생생하고 교훈을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으면서도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게 우리 아닌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으면서도 늘 원망 불만 탄식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눈 떠! 눈 떠! 눈을 떠서 살펴보면 내가 있고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하나님 자신은

보라는 것이다.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 성읍을 에워싸자 사환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이 떠질 때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자. 나도 눈을 뜨고 아직도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는 눈 떠! 눈 떠! 하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겠나?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The ad features a blue and white color scheme with a family photo on the right. Text includes: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Contact info: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